

축산업계

소식

뉴캐슬병 방역철저 당부 충남북, 경북, 전남에 만연

농림수산부는 최근 충남북, 경북, 전남 등 전국에서 뉴캐슬병이 만연되어 양계농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육계농장에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채란농장에서는 1~2회 음수백신 이후 보강접종을 하지 않거나 예방주사시 접종을 누락하거나 접종 미숙이 주요 발생원인이 된다. 또 환기불량, 과밀 사육 등 계사환경 불량시 호흡기질병 발생으로 인한 폐사 및 발육지연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 및 방역조치로 △뉴캐슬병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한 접종을 필히 실시 △계사와 양계도구를 깨끗이 하고 철저히 소독 △동시 입식, 동시 출하 방법의 사육 실시 △신규입식시는 예방주사의 실시여부와 질병발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농장에서 구입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다른 양계농가의 방문 삼가 △중계상인의 출입통제, 차량이나 출입자의 철저한 소독후 출입 등 위생적인 관리 △환기 및 보온등 사육환경 개선으로 암모

니아 가스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 △병든 닭이 발견될 때에는 가축위생시험소, 시·군청 등에 신고하여 방역조치를 받도록 함 △축주는 수시로 예방접종 실시 및 축사소독 등 관리상태를 직접 점검하여 종사원의 예방주사 기피 사례 등을 사전 예방할 것.

예방접종 요령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다.

닭	백신 종류	접종 방법	백 신 접 종 시 기			
			1차	2차	3차	4차 보강접종
육계	생독	음수	1주령	2주령	3-4주령	
			B ₁	B ₁	B ₁	
채란계	생독	음수	1주령	2주령	4주령	8주령 16-18주령
			B ₁	B ₁	B ₁	라스타-사독오일백신 또는
	사독	근육 주사	←생독백신 접종→			사독겔백신-사독오일 백신

도계장시설 근대화 자금 5개 업체 확정 업체당 5억원씩 융자

농림수산부는 위생도계육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91년 도계장시설 근대화 자금 지원 5개 업체를 확정하였다.

위생적 도계육 공급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닭고기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수급의 원활과 양계농가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자금을 지원받게 될 업체는 류성브로이라, 인천식품, 천호인티그레이션, 한일식품, 대성식품이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2년균분상환 연리 8%로 업체당 5억원씩 융자된다. 이번에 지원된 자금은 도계시설(가공, 비축시설 포함)을 개선하는데 쓰여지게 된다.

90년 농가호당 평균소득 1천1백만원 농업소득 56.8% 차지

농림수산부가 전국 301개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90년 농가경제조사 결과 작년도 농가 평균 소득이 1천1백2만6천원, 부채가 4백73만4천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6백26만4천원으로 56.8%, 농외소득이 4백76만2천원으로 43.2%를 차지하였다. 한편 농가 소득규모별 분포는 5백만원 미만이 10.7%, 5백~8백만원이 22.5%, 8백~1천만원 16.1%, 1천~1천2백만원 14.2%, 1천2백~1천5백 15.7%, 1천5백~2천만원 12.3%, 2천만원 이상이 8.5%로 집계되었다.

89, 90년 농가경제 주요지표는 다음과 같다.

농가경제 주요지표

(단위 천원)

구 분	89년	90년
① 농 가 소 득 (증 가 율)	9,437 (16.1%)	11,026 (16.8%)
㉞ 농업소득	5,616	6,264
—농업조수익	8,212	9,078
—농업경영비	2,596	2,814
㉞ 농 외 소 득 (구 성 비)	3,821 (40.5%)	4,762 (43.2%)
② 농 가 부 채 (증 가 율)	3,899 (24.5%)	4,734 (21.4%)
—사채	627	656
(구 성 비)	(16.2%)	(13.9%)
③ 농 가 자 산	57,929	79,352

축산폐수 법률 시행령(안) 수정 건의 축산관련단체, 업계현실과 거리 멀어

본회를 비롯한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축협중앙회는 지난 18일 모임을 갖고 입법예고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긴급협의를 하였다.

이날 협의에서는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업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환경처와 농림수산부에 일부조항을 수정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축산배설물은 타산업의 폐수, 오염물질과 달리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식수원과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고능력 채란계 사양관리 세미나 개최 고창양계 주최로 대구, 평택, 의정부에서



고창양계(대표 신흥종)는 “고능력 채란계 사양관리 키포인트”에 관한 세미나를 22일 대구 뉴영남호텔, 23일 평택 강원가든호텔, 24일 의정부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하였다.

데칼브사 Eugene Liu씨가 변경된 사양관리 지침서를 중심으로 데칼브 외렌 사양관리 요점을 설명하였다. Liu씨는 “닭을 사양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사료, 광선, 공기, 물, 사양면적, 위생 등의 조건을 적절히 만족시켜야 한다. 6가지 요구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결과를 초래하므로 총체적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고창기계시스템의 계사자동화 시설을 전시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축산법 개정안 국회에 상정 못해 각 부처간 이견, 이해관계로

법적, 제도적으로 미흡하여 개정해야 할 축산법을 비롯한 축산관련 각종 법안이 이번 145회 임시국회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이는 정부 각 부처간, 정당간 이견으로 인하여 상정치 못해 축산업 발전에 저해되고 있다. 그동안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검토된 법안들로 축산법, 낙농진흥법, 초지법, 동물보호법 등 수입개방에 대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선되어야 하나 각 부처간 이해관계, 이견 등으로 국회에 상정치도 못하고 있다.

물가안정 위해 수입쇠고기 무제한 방출 돈육 대체 육가공원료로 칠면조육 수입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5월부터 수입쇠고기를 무제한 방출하고, 분유와 돼지고기를 추가 수입키로 하였다. 또 칠면조 고기를 수입키로 하였다.

지난 24일 물가대책차관 회의에서 쇠고기 1일 방출량을 4백톤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한편 수입쇠고기 고급육 도입비중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을 중소도시까지 설치해 오는 6월까지 2천8백개 규모로 늘리기로 하였다. 또 분유와 돼지고기를 6천톤씩 추가 수입하며, 돼지고기 대체 육가공 원료로 쓰일 칠면조 고기를 적극 수입키로 하였다.

91년 축산학 학술대회 개최 예정 6월28일부터 제주도에서

축산관련학회는 오는 6월28일부터 3일간 제주도에서 91년 축산학 학술대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지난해 축산관련 학회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된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에서 올해부터

는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 비용을 절감하고, 회원들의 효과적인 연구활동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UR 농산물협상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축위생연구소 창립80주년 기념식 거행



가축위생연구소(소장 박근식)은 지난 4월10일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2백여명의 축하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하였다.

연구소는 1911년 창립되어 축산업을 육성 발전하는데 크게 공헌해왔다. 이날 창립 80주년 기념식과 연구소가 걸어온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야외에 관련자료를 전시 소개하는 기념행사도 가졌다. 또 "한국 수의학 발달사와 가축위생연구소의 역할"에 관해 특강이 있었다.

한편 연우회 91년도 총회를 겸해 제3차 친정나들이를 갖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축산시험장장에 이근상씨 취임

축산시험장 제10대 장장에 이근상 전 육우과장이 취임하였다.

신임 이근상 장장은 58년 서울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축산시험장에서만 33년을 근무, 연구활동을 해왔다. 지난 19일 축산시험장 대강당에서 취임식이 있었다.